

高麗末·朝鮮初王室用磁器의 제작 체계 연구

김 윤 정*

I. 머리말
II. 高麗末 銘文靑磁의 성격과 제작 체계
III. 高麗末·朝鮮初 '司饗'을 통해 본 왕실용 자기의 제작 체계
IV. 司饗院에 沙器所를 설치하는 원인과 시기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왕조가 사용원에 설치한 沙器所는 왕실용 磁器의 제작을 전담하는 공식적인 官窯였다.¹ 현재 조선초 관요에 대한 연구는 설치 시기, 가마가 설치된 지역, 운영 방법, 제작된 자기의 품종과 기종, 조형적인 변화 등을 중심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² 본고에서는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왕실용자기를 제작하는 사기소가 사용원에 설치되었다'는 사실에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여, 고려말부터 조선초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어떤 체계하에서

* 용인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¹ 사용원에 설치되었던 沙器所는 관영으로 운영되는 沙器를 제작하는 '곳[所]' 또는 '衙門'으로 정의하였다. 所는 조선초 관계에서⁵ 품이나⁶ 품의 衙門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왕실용 자기가 제작되었는지를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첫째, 吏曹에 속해서 御膳을 담당하던 사용원에 사기소가 설치되는 것은 조선시대 관제의 기본이 되는 육조 체제에서 보면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1405년에 발표되는 업무 분장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기소의 설치와 운영은 吏曹보다는 工曹과 관련된 일임을 알 수 있다. 1405년에 상정된 六曹의 직무에서 百工의 制作·繕治·陶鑄는 공조에 속한 政治司의 일이며³, 백공의 제작과 관련된 많은 관사가 공조에 속해 있었다.⁴ 陶鑄의 일이 공조에 분장된 직무라고 한다면 사기소는 공조나 그 하위 관사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吏曹에 속한 사용원에 설치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둘째, 사용원이 御膳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릇을 만드는 사기소가 설치되었다면, 사용원 이전에 내선 공장을 담당했던 사선서에는 왜 사기소가 설치되지 않았는가의 문제이다.⁵ 즉, 沙器所는 고려말인 1308년부터 조선 15세기 중반경까지 內膳 供上을 담당하였던 司膳署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사용원에 설치되었다는 점은 御膳을 담당하는 직무와 상관없이 사용원에 어기 제작과 관련된 특별한 역할과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추정하게 한다. 따라서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동일한 직무를 가졌던 사용방과 사선서의 성격을 파악하여, 사용방이 사선서와 달리 어기 제작을 전담할 수 있었던 원인을 밝히는 것은 당시 왕실용자기의 제작 체계

² 강경숙, 「分院成立 時期에 관한 小考」, 『美術史學論叢』(通文館 1988), pp. 655-663; 同著, 「分院成立에 따른 粉靑沙器 編年 및 靑畫白磁 개시문제 시론」, 『韓國私學論叢』下 朝鮮時代 篇(一潮閣, 1994), pp. 1472-1497; 同著, 「광주지역 가마출토 분청사기와 백자」, 『광주분원과 조선도자』(경기도박물관, 2001), pp. 41-88; 윤용이, 「朝鮮時代 分院의 成立과 變遷에 관한 研究(I)」, 『考古美術』149(한국미술사학회, 1981), pp. 22-45; 同著, 「朝鮮時代 分院의 成立과 變遷에 관한 研究(II)」, 『考古美術』151(한국미술사학회, 1981), pp. 46-59; 同著, 「조선시대 分院의 성립과 변천」, 『광주분원과 조선도자』(경기도박물관, 2001), pp. 7-23; 김영원, 『朝鮮前期 陶磁의 研究 -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학연문화사, 1995); 同著, 「分院 官窯와 地方窯」, 『광주분원과 조선도자』(경기도박물관, 2001), pp. 25-40; 同著, 『조선시대 도자기』(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방병선, 「중국 어기창과 광주분원」, 『광주분원과 조선도자』(경기도박물관, 2001), pp. 89-106; 同著, 「법전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자기 생산과 관리」,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향산 안희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사회평론, 2006), pp. 518-541; 전승창, 「조선 관요의 분포와 운영체계 연구」, 『미술사연구』18 호(미술사연구회, 2004), pp. 3-27; 同著, 「15~16세기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관요 연구」(홍익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³ 『太宗實錄』卷9 5年 乙酉 3月 “禮曹詳定六曹分職及所屬…工曹掌山澤工土木營繕屯田鹽場陶冶等, 事其屬有三, 一曰營造司, 二曰政治司, 三曰山澤司, …政治司掌百工制作·繕治·陶鑄之事.”

⁴ 『太宗實錄』卷9 5年 乙酉 3月 “禮曹詳定六曹分職及所屬…工曹所屬繕工監·司宰監·供造署·都染署·沈藏庫·別鞍色·尙衣院·上林園·東西窯·各道鹽屯田.”

⁵ 조선 왕조의 개창 직후인 1392년에 발표한 신정관제에서 내선 공장을 담당하는 관사는 사선서이며, 사용방의 직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사용원이 御膳을 담당한다는 직무에 대한 명시는 1466년에 완성된 『經國大典』 吏典條에서 확인된다; 『太宗實錄』1 卷, 1年 7月 28日 丁未條 “司膳署 掌內膳供上之事. 令一, 從五品 丞二, 從六品 直長二, 從七品 食醫二, 正九品 司吏二, 權務去官.”; 『經國大典』 卷1 吏典 正三品 衛門條 “掌供御膳及闕內供饋等事.”

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말기에 제작되는 명문청자의 성격과 제작 상황을 고찰하여 내시가 이미 원간섭기 이후부터 왕실용 자기 제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1389년 조준의 상소에 명시된 ‘司饗’와 조선초 司饗房도 국왕의 최측근인 內侍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구였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왕실용 자기 제작 과정에서 내시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용원에 왕실용 자기 제작을 담당하는 沙器所가 설치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과 설치 시기를 밝히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왕실용 자기의 의미는 고려와 조선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고려의 경우, 왕실 의례나 왕실의 私藏庫적인 성격이 짙은 관청에서 사용하던 청자, 고려말 사용에서 監造·調達했던 내용자기 등을 왕실용 자기로 보았다. 조선초 왕실용 자기는 소용처가 사용방이 설치되었던 대전·중궁전·세자전인 경우, 왕의 賜與·玩好 등에 사용되는 자기로 한정하였음을 일러둔다.⁶

II. 고려말 銘文靑磁의 성격과 제작 체계

고려 말기에는⁷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儀禮나 官司와 관련된 명문청자가 많이 제작되는 특징이 있다.⁸ 의례명과 관사명청자의 성격과 제작 시기, 제작 상황 등을 고찰하여, 고려초의 內侍가 왕실과 관련된 청자 제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⁶ 고려와 조선의 왕실용 자기의 범주가 다른 이유는 첫째, 조선초에 왕실 관련 기구들이 확대·재편성되었고 供上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둘째, 왕실 중심이었던 고려조의 각종 의례가 조선초에는 폐지되거나 나라 제사(國祭)의 성격으로 변화였다. 셋째, 고려말 왕실의 私藏庫였던 덕천고와 의성고가 조선초에 내자시와 내섬시로 개편되면서 왕실의 사장고적인 성격을 벗어나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⁷ 강경숙, 『한국 도자사의 연구』(시공사, 2000), pp. 113-114. 고려 도자의 편년은 초기(918-1046)·중기(1047-1146)·후기(1147-1274)·말기(1275-1391)의 안에 따라서 고려 말기는 원간섭기 이후부터 고려가 망하는 1392년까지로 설정하였다.

⁸ 현재 알려진 명문청자의 성격을 보면, 10세기에서 12세기경 청자에는 주로 匠人이나 소장자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명문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경에 제작된 명문청자는 儀禮銘·官司銘·干支銘이 주를 이룬다. 본고에서는 명문의 성격이 분명한 官司銘과 儀禮銘청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간지명청자는 제외하였으며 별도의 논고를 통해서 다루고자 한다.

1. 儀禮銘青磁

의례 명칭자는 燒錢·燒錢色·七元前排·十一囀前排·天皇前排·三官·天·地·鬼 등 道教와 관련된 명문이 대부분이고, '內侍銘이 들어간 예도 있다 (표1).

燒錢色은 『태조실록』과 『고려사』에서 도교 의례를 담당한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 1392년에 예조에서 醮祭를 지내는 여러 醮所 중에 소전색이 언급되어 있으며, 충렬왕 4년

표 1 儀禮와 관련된 銘文青磁

제작시기	명문내용	기종	시문부위	시문기법	번조방법	소장/전거
13세기 후반 ~ 14세기 1/4 분기	燒錢	청자상감늪문잔	몸체 중앙	흑상감	모래섞인 내 화토	국립중앙박물관
	燒錢	청자잔	몸체 중앙	음각	모래섞인 내 화토	혜 강도자미술관
	燒錢	청자탁잔	반침 아래	음각	모래섞인 내 화토	野守健
	燒錢色	청자잔	몸체 외면	철화	모래섞인 내 화토	국립중앙박물관
	燒錢色	청자접시	안바닥 중앙	철화	모래섞인 내 화토	〃
	天	청자상감잔편	몸체	흑상감	-	개성 子男山東麓
	天	청자접시	내면 중앙 몸체 외면	흑상감	규석 받침	국립중앙박물관
	地	청자상감접시	내면 중앙 몸체 외면	흑상감	규석 받침	계명대 박물관
	地	청자상감늪문잔	몸체 외면	흑상감	규석 받침	혜 강도자미술관
	鬼	청자상감접시	내면 중앙 몸체 외면	흑상감	규석 받침	국립중앙박물관
	鬼	청자상감잔	몸체 외면	흑상감	규석 받침	〃
	七元前排	청자상감국화문전접시	몸체 외면	흑상감	규석 받침	〃
	十一囀前排	청자상감국화문전접시	몸체 외면	흑상감	규석 받침	〃
	天皇前排	청자상감과형병	몸체 외면	흑상감	규석 받침	강진청자자료박물관
	三官	청자상감국화절지문잔	몸체 하부	흑상감	규석 받침	혜 강도자미술관
	三官	청자상감늪문잔	몸체	흑상감	규석 받침	〃
三官	청자상감국화문접시	굽바닥 원편	흑상감	모래 · 내 화토	국립중앙박물관	
14세기 1/4 분기	向上員房內侍右番	청자상감늪문배	몸체	흑상감	규석 받침	국립중앙박물관
	向上員房內侍左番	청자상감늪문배	몸체	흑상감	모래 받침	이회여대박물관
	上內侍右番扉章房	청자상감늪문배	몸체	흑상감	규석 받침	계명대 박물관포

(1278)에도 소전색에서 도교 의례를 준비할 때, 醮酒가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燒錢'이나 '燒錢色'銘칭자는 상감·철화·음각기법으로 시문된 예가 있으며, 굽의 처리, 번조 방법, 유색, 다듬새 등으로 보아 비교적 粗質이며, 제작 시기는 13세기 4/4 분기 경으로 추정된다(도, 2, 3).¹¹



도1 <청자상감 '燒錢' 명잔>, 13세기 4/4분기 추정, 높이 5.3cm, 입지름 9.8cm, 국립중앙박물관



도2 <청자철화 '燒錢色' 명잔>, 13세기 4/4분기 추정, 높이 6cm, 입지름 9.3cm, 밑지름 3.6cm, 국립중앙박물관



도3 <청자음각 '燒錢' 명잔>, 13세기 4/4 분기 추정, 높이 6.5cm, 입지름 9.0cm, 해강도자미술관

⁹ 『太祖實錄』卷2 元年 壬申 11月 “禮曹啓, 道家星宿之醮, 貴於簡嚴, 盡誠敬而不瀆, 前朝多置醮所賣而不專, 乞只置昭格殿一所, 務要清潔, 以專誠敬, 其福源宮·神格殿·九曜堂·燒錢色·大清觀·清溪拜星所等處, 一皆革去, 上從之.”

¹⁰ 『高麗史』誌 39 刑法 禁令 “忠烈王 四年二月, … 國行祭享醮酒, 良醮署, 亦別建造醮都祭庫, 燒錢色, 傳請, 供設…”

七元前排와 十一曜前排 天皇前排가 상감된 명문청자도 도교의 醮에서 사용된 것이다(도4, 5).¹² 칠원은 일반적으로 북두칠성으로 알고 있는 ‘북두대성 칠원성군’을 의미하며, 사람의 운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최상위신이다.¹³ 십일요초는 고려시대 총 8회가 설행되었는데¹⁴, 의종 연간(1147-1170)에 시행된 4회를 제외하면 원종 14년(1273) 5월과 11월, 원종 15년(1274) 5월, 충렬왕 14년(1288) 12월을 포함하여 13세기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¹⁵ 특히 칠원전배와 십일요전배가 흑상감된 접시는 기형과 접시 안바닥에 국화문이 백상감되어 있는 문양까지 거의 유사하고, 얇은 다리굽에 규석 받침으로 번조되어서 13세기 후반 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도5-1, 5-2).

三官銘이 있는 잔과 접시도 도교 의례인 三元齋와 관련될 것으로 추정된다. 삼원제는 天官·地官·水官에게 죄를 참회하는 의식으로, 天官·地官·水官을 三官이라고 한다.¹⁶ ‘三官’명이 있는 두 개의 잔은 기형, 크기, 문양 배치가 유사하지만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잔은 몸체에 三官을 흑상감하였고, 개인 소장의 잔에서는 이중원권 안에 ‘三官’字를 각각 배치하였다(도6, 7). 특히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잔의 굽이 얇은 반면에 개인 소장의 잔은 굽이 높고 짙음새가 둔하고 접지면이 넓어지고, 명문이 도장을 찍은 것처럼 굽고 진하게 상감되는 특징이 있다(도6-1, 7-1). 이러한 점은 1332년으로 추정되는 <임신명잔편>과 유사하여, 두 점의 <삼관명잔>에서 시기적인 선후 관계를 볼 수 있다(도8, 8-1).

11 野守健, 『陶磁器銘』, 『高麗陶磁の研究』(東京: 清閑舎, 1944), pp. 90-91. <청자 ‘소전 명잔’>이나 <청자 ‘소전 명잔’>은 모두 제작수법이 세련되지 않은 것으로보고 청자의 最盛期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鄭良謨, 『高麗陶磁銘文의 性格』, 『高麗陶磁銘文』(國立中央博物館, 1992), pp. 143-159. 음각·철화·상감기법의 <청자 ‘소전 명잔’>은 모두 13세기로 추정하였다.

12 金勝惠, 『《東文選》醮禮青詞에 대한 宗敎學的 考察』, 『도교와 한국사상』 한국도교사상연구총서 I(범양사, 1987), pp. 107-113. 醮禮에는 기원문인 齋詞·青詞가 사용되는데, 이규보가 작성한 37편의 청사 중에 北斗醮, 十一曜醮, 天皇醮 등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보스톤미술관 소장의 <鐵盞光如來往跡圖>에서도 당시 도교신들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다. (姜素妍, 『鐵盞光如來往跡圖』, 『國華』第1313號(朝日新聞社, 2005), pp. 50-53 참고.)

13 이규보의 시에서도 늙은 무당이 벽에 여러 神像을 그리고 七元和 九曜를 모셨던 것을 알 수 있다. 『東國李相國集』全集 卷第二 古律詩 老巫篇 “...丹青滿壁盡神像, 七元九曜以標額. 星官本在九霄中. 安能從汝居汝壁...”

14 火·水·木金·土星을 오성이라 하고, 여기에 日·月을 합쳐 七曜라고 한다. 計觀·羅喉를 합해서 九曜, 月孛·紫氣를 합해서 十一曜가 된다. 십일요는 중요한 천체를 모두 포함하는 星宿의 대표이며, 십일요초는 도교에서 십일요에 드리는 祭를 의미한다. (서윤길, 『九曜信仰과 그 思想源流』, 『한국밀교사상사연구』, 불광출판사, 1994, pp. 278-280 참조.)

15 金澈雄, 『高麗中期 道敎의 盛行과 그 性格』, 『道敎의 韓國的 變容』 韓國道敎思想研究叢書 X(亞細亞文化社, 1996), pp. 181-182 <표>, p. 171 <표> 참조

16 金澈雄, 위의 글, p. 178.



도4 <청자상감국화절지문 '七元前排'명접시>, 13세기 후반 추정, 높이 3.6cm, 입지름 12.8cm, 국립중앙박물관



도5 <청자상감국화절지문 '十一曜前排'명접시>, 13세기 후반 추정, 높이 3.0cm, 입지름 12.1cm, 국립중앙박물관



도5-2 도5의 굽바닥

도5-1 도5의 내면

天·地·鬼銘청자도 天界·地界·人界를 의미하는 三界醮와 관련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에 삼계초를 지낸 기록은 총 39회로, 고종 45년(1258)부터 충선왕대까지 19회가 선행되었다.¹⁷ 天·地·鬼銘청자는 주로 접시와 잔이 남아 있는데, 모두 규석 받침으로 제작되었다.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지명잔>은 굽다리가 얇고 굽이 비교적 얇은 편으로 13세기 3/4분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도9, 9-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天銘접시>·<地銘접시>와 계명대박물관 소장 <地銘접시>는 유색이 어두워지면서 기벽이 두껍고 굽다리가 약간 높아지면서 굽이 두껍고 둔해지는 경우는 14세기 1/4분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도10, 10-1).

¹⁷ 『고려사』에서 삼계초를 지낸 횡수는 숙종대 2회, 예종대 3회, 의종대 6회, 고종대 5회, 원종대 6회, 충렬왕대 10회, 충선왕대 1회, 충숙왕대 1회, 충목왕대 2회, 충정왕대 1회, 공양왕대 1회이다.



도6 <청자상감'三官'명잔>, 13세기 후반 추정,
높이 6.8cm, 입지름 9.8cm, 밑지름 4.3cm,
해강도자미술관



도6-1 도6의 굽바닥



도7 <청자상감'三官'명잔>, 14세기 1/4분기 추정,
높이 7.4cm, 입지름 10.5cm, 밑지름 5.2cm,
개인소장



도7-1 도7의 굽바닥



도8 <청자상감'壬申'명잔편>, 1332년, 해강도자미술관



도8-1 도8의 굽바닥



도9 <청자상감'地'명간>, 13세기 3/4분기 추정,
높이 6.0cm, 입지름 8.9cm, 해강도자미술관



도9-1 도9의 굽바닥



도10 <청자상감'地'銘접시>, 14세기 1/4분기 추정,
높이 3.7cm, 입지름 12.1cm, 계명대박물관



도10-1 도10의 굽바닥

지금까지 살펴본 청자의 명문이 모두 도교 기관이나 도교 의례인 醮를 의미하며, 청자 제작 시기도 의례가 선행되었던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1/4분기 경으로 일치하였다. 醮祭는 고려시대 나라 제사의 주류였을 뿐만 아니라¹⁸ 왕실의 안녕과 壽福을 기원하거나 천재지변이나 兵禍 등에 대한 消災를 일월성신에게 기원하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왕실과 밀접하게

¹⁸ 金海榮, 「詳定古今禮」와 高麗朝의 祀典, 『朝鮮初期 祭祀典禮 研究』(집문당, 2003), pp. 20-31. 고려조에서 시행된 나라 제사의 주류는 유교 계례보다 『고려사』 雜記條에 가장 많은 기사를 접하고 있는 道家의 제사의식인 醮라고 할 수 있다

관련되었다.¹⁹ 도교의례의 시행 횟수는 12세기대인 예종(1106-1122)과 의종 연간(1147-1170)에 가장 많지만 이 시기에 도교의례와 관련된 명문청자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이후에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인 원종대(1259-1274)와 충렬왕대(1274-1308)에 다시 도교 의례가 활발하게 선행되었는데²⁰, 대부분의 도교의례명 청자는 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왕실 재정이 안정적이었던 의종대(1147-1170)에는 齋醮에 소용되는 그릇을 주로 옥이나 금속기로 사용하였던 반면에²¹ 고려의 왕실 재정이 악화된 대몽항쟁 이후인 13세기 후반 경부터 의례에 사용되는 제기가 金·銀·鑲·銅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청자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여기에 사용된 청자와 같은 각종 기물을 어떻게 누가 준비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왕실의 醮祭와 관련한 의종 23년(1169)과 고종 45년(1258)의 기록이 주목된다. 의종 23년에는 왕이 주관하는 도교 의례의 비용을 담당관사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내시들이 別貢을 제정하여 金·銀·鑲·銅으로 만든 器皿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고 하며²², 고종 45년에는 도교의례를 담당하는 淨事色을 다시 설치하면서 내시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내시정사색’이라는 관명까지 사용하였고, 권세 있는 자들이 정사색에서 내시를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²³ 이 두 기록에서 內侍가 왕이 주관하는 도교 의례의 비용과 각종 기물을 준비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려시대 내시는 宦官이 아닌 일반 관리이며²⁴,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국왕의 近侍職으로 侍奉 및 호종 등의 일을 맡아 왕명을 수행하면서 왕실 의례나 재정 전반을 책

19 金勝惠, 앞의 글, pp. 115-116. 醮禮의 祭官은 왕이며, 초례에서 복을 받는 대상은 왕을 비롯하여 왕실 및 국가 전체였다.
20 梁銀容, 「高麗時代의 道教와 佛教」, 『도교와 한국 사상』 한국도교사상연구총서(법양사, 1987), pp. 98-99.

德宗 (1032-1034)	靖宗 (1035-1046)	文宗 (1046-1082)	宣宗 (1083-1094)	肅宗 (1095-1105)	睿宗 (1106-1122)	仁宗 (1123-1146)	毅宗 (1147-1170)	明宗 (1171-1179)
1회	6회	14회	12회	14회	23회	11회	29회	8회
高宗 (1214-1259)	元宗 (1260-1274)	忠烈王 (1275-1308)	忠宣王 (1309-1313)	忠肅王 (1314-1339)	忠穆王 (1345-1348)	忠定王 (1349-1351)	禎王 (1375-1388)	恭讓王 (1389-1392)
12회	14회	25회	1회	6회	4회	1회	6회	1회

21 『高麗史』世家 19 毅宗 庚寅 二十四年 四月 “乙巳, … 王欲親醮老人星, 命判禮賓省事金于蕃·郎中陳力升, 擯堂於眞觀寺南麓, 又立別恩祈所, 造金銀花, 及金玉器皿.”
22 『高麗史』世家 19 毅宗 23年 2月 “乙卯, 設三界醮, 時, 齋醮之費甚繁, 都祭·都齋二庫, 未支其用, …, 內侍劉邦義·奏得文·李諫·金應和·金存偉·鄭仲壺·希胤·魏紳然等, 深結宦寺, 約爲兄弟, …, 又制別貢, 金銀鑲銅器皿, 山積, …”
23 『高麗史』志 31 百官 諸司都監各色 “淨事色, 高宗時, 諸事未具, 久廢親醮, 至四十五年, 取權臣家淨事色器械, 以充其用, 選差內侍參上, 參外勤恪者, 稱內侍淨事色, 每政, 超資陞授, 有勢者爭入, 員數漸多, …”

입지고 있었다.²⁵

당시 內侍들에 의해 주도된 왕실 의례는 '내시'명이 들어간 세 점의 <청자배>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靑磁象嵌'向上員房內侍右番盃>, 계명대박물관 소장 <靑磁象嵌'上內侍右番屏章房銘盃>, 이화여대박물관 소장 <靑磁象嵌'向上員房內侍左番銘盃>는 모두 잔보다 크고 대접보다 작은 크기로, 몸체 전면에 시계 방향으로 명문이 상감되어 있다(도 11, 12, 13). 세 점의 <청자배>는 모두 기벽이 두꺼워지면서 굽이 높고, 굽깎음새가 둔해지고 접지면의 모서리가 둥글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14세기 1/4분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도 11-1), (표 1).

명문 내용에서 내시좌변과 내시우변의 의미, 병장방이나 상원방의 의미, 내시와의 관계, 상과 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내시우변과 내시좌변은 권문세가의 자제로 구성된 右番內侍와 儒臣으로 구성된 左番內侍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국왕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왕의 충예를 받기 위해서 진귀한 물건을 왕에게 직접 進上하기도 하였다.²⁶

내시와 병장방의 관계는 李穡(1328-1396)이 남긴 두 편의 한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궁정에서 행하는 귀신을 쫓는 나례의식을 묘사한 <驅難行>이라는 한시의 내용 중에, 내정에 악귀를 막기 위해 해마다 병장방을 설치하고 이 의례에서 내시들은 악귀를 막는 偈子 역할을 한다는 구절이 있다.²⁷ 다른 시는 궁궐에서 매년 설달 그림날에 병장방 앞에 푸른 막사[취막]를 길게 설치하고, 골계희(시끄럽게 웃으며 하는 얘기가 싸우는 듯한 만담)와 의례를 진행하는 내용이다.²⁸ 이러한 시의 내용으로 볼 때, 병장방은 해마다 궁궐에서 행해지는 나례와 같

²⁴ 朴漢男, 「高麗內侍와 門閥貴族의 形成關係 -高麗前期 東萊鄭氏家門을 中心으로-」, 『首善論集』 第9輯(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3), pp. 139-145. 내시의 임기는 대략 만9년으로, 국왕의 신임과 충예를 받을 수 있는 近侍職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朝官이나 지방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²⁵ 김보광, 「高麗前期 內侍의 構成과 役割」, 『한국사학보』 제13호(2002. 9), p. 129. 내시는 국왕의 특별한 命을 받아 수행하는 왕명의 전달, 국가 창고의 관리, 공역의 감독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였다.

²⁶ 『고려사』 世家 18 毅宗 乙酉 十九年 四月 “甲申, 內侍左右番, 爭獻珍玩. 時, 右番, 多納袴子弟, 因宦者, 以聖旨, 多索公私珍玩·書畫等物, 又結綵棚, 載以雜伎, 作異國人貢獻之狀, 獻靑紅蓋二柄·駿馬二匹, 左番, 皆儒士, 不慣雜戲, 其所貢獻, 百不當一, 恥不及, 借人駿馬五匹, 以獻. 王, 皆納之, 賜左番白銀十斤·丹絲六十五斤, 右番白銀十斤·丹絲九十五斤, 其後, 左番, 不能償馬之直, 日被徵債, 時人笑之.”; 『高麗史』 122 列傳 35 宦者 白善淵 “...胥吏奏得文, 事二人, 如奴隸, 得拜寶城判官, 以竹造几案及盤, 獻之, 王, 悅, 召爲內侍.”

²⁷ 李穡, 『牧隱詩稿』 卷之二十一 詩 驅難行 “國家大置辟障房 歲歲掌行滿內庭 貴門偈子聲相連 掃去不祥如迅雷 司平有府備巡警 烈士成林皆五丁 忠義所激代辟障”

²⁸ 李穡, 『牧隱詩稿』 卷之十三 詩 絕句 “雲薄斜暉已近西, 清香燕燕舞難犀, 可憐郡縣多逃戶, 冰雪深崖鳥撲隄, 辟障房前翠幕長, 紛紛笑語鬪豪狂, 九重除日供齋禮, 偈子傳呼辟不祥.”



도11 <청자상감 '上內侍右番' 명배>
14세기 1/4분기 추정, 높이 9.3cm,
입지름 13.1cm, 밑지름 6.2cm, 국립중앙박물관



도11-1 도1의 굽바닥



도12 <청자상감 '上內侍右番' 명배>
14세기 1/4분기 추정, 높이 9.4cm,
입지름 12.5cm, 밑지름 6.3cm, 계명대학교박물관



도13 <청자상감 '上內侍左番' 명배>
14세기 1/4분기 추정, 높이 8.9cm, 입지름
13.7cm, 밑지름 6.4cm,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은 왕실 의례에 설치되는 내시원의 산하기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원방의 의미도 내시와 관련하여 볼 수 있다. 내시는 參上員과 參外員으로 나뉘는데, 내시참상원만이 국왕을 측근에서 보좌하면서 국왕이 임석하는 조회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각종 의례시에 殿庭 안에서 예를 올릴 수 있었다.²⁹ 예를 들어 팔관회와 같은 큰 의례에서 국왕 옆에서 의례를 보필할 수 있는 관리 중에 內侍參上員이 있고³⁰, 새로 급제한 문경이라는 사람을 내시참상원으로 지칭하고 있다.³¹ 따라서 상원방도 각종 의례나 직무에서 왕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던 내시참상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시원 산하의 기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내시원에는 御廚, 飯房, 衣房, 進房과 같은 산하 기구들이 존재하였는데³², 병장방과 상원방도 내시들이 운영한 기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上’이나 ‘向’은 ‘~께 올린다’나 ‘바친다’는 의미로 추정되어서, ‘내시우변 병장방에서 (왕에게) 올린다’, ‘상원방 내시우변 [내시좌변]에서 (왕에게) 바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³³ 따라서 ‘內侍’명이 들어간 명문청자는 왕실 의례에서 내시들이 왕에게 진헌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2. 官司銘青磁

관사명청자에는 冥禮色, 準備色, 德泉, 義成庫, 寶源庫, 司醴署, 司膳 등의 관사 이름이 흑상감되었으며, 1345년의 <‘을유사은서’명대명>을 시작으로 주로 14세기 후반에 제작되었다(도 14), (표 2).³⁴ 관사의 성격과 역할, 운영주체 등을 고찰하여, 이 시기의 관사명청자도 왕실이나 내시와 관련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의 주요 재정항목인 供上, 國用, 祿奉, 軍資, 救恤 중에, 청자의 관사명이 대부분 공상에 속한 고려 후기 관청들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³⁵ 공상은 왕실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공적인 왕실 재정을 의미하는데, 공상을 담당하는 왕실 재정기구에는 1308년에 많은

29 박용운, 『高麗時代 官階·官職 研究』(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pp. 21-24. 고려조 관직은 품계에 따라 宰樞·參上·參外로 구분되었다. 계추는 2품관 이상, 참상직은 3품 이하 6품관 이상, 참외원은 7품 이하직을 의미한다. 참상직을 거치게 되면 그 후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길도 순조로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30 『高麗史』卷 69 誌 23 禮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坐殿受賀 群臣獻壽 “次傳侍立員將·兩部樂官·侍奉軍人·宣賜酒果訖, 左右承制·千牛上大將軍·茶房·內侍參上員·殿上左右執禮 …”;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p. 175, 377.

31 『高麗史』卷 137 列傳 50 辛昌 元年 十月 “甲子, 霧 舊例, 登第者, 雖參上, 皆分三館, 知申事李行, 聽李種學之請, 以新及第文藝, 爲內侍參上員, …”

32 金載名, 『高麗時代의 胥吏內侍』, 『진단학보』101 호(진단학회, 2006), pp. 184-190, p. 184 <표 2> 참조.

33 고려 1196년에 제작된 德興寺鐘의 명문에서 “上棟梁戶長金仁鳳, 副棟樑匠甫慶鄴陳蕃孝”은 “동량과 부동량이 (부처에게) 바친다”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종의 명문에서 볼 수 있는 “造上”이라는 표현도 “만들어 바친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上”에는 “~에게 바친다(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4 김윤정, 『고려말·조선초 官司銘梅瓶의 製作時期와 性格』, 『흙으로 빛은 우리 역사』(용인대박물관, 2004), pp. 160-162; 朴敬子, 『14세기 康津 磁器所의 체계와 窯業 체계의 이원화』, 『미술사학연구』 238·239(2003·9), pp. 120-127.

35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 17과 p. 190의 <표> 참조.



도 14 <청자상감유문 ‘乙酉司膳’
명대 병>, 1345년, 높이 30.4cm,
밑지름 11.8cm, 국립중앙박물관

변화가 있었다.³⁶ 이때 충선왕이 단행한 재정 개혁의 주목적은 왕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倉庫를 개편하거나 신설하는 것이었다. 의성창[의성고]과 덕천창[덕천고]의 설치가 대표적인 예이며, 사은서와 사선서도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³⁷ 사선서는 기존의 상식국이며, 御廚·別廚·迎賓都監 등이 병합되어 기능이 강화되었다.³⁸

특히, 御膳 담당이라는 동일 직무를 가진 상식국과 어주의 관계가 주목되는데, 상식국이 정식 관사였다면, 御廚는 국왕이 뽑은 內侍가 담당하였다.³⁹ 상식국과 어주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고려말 사선서와 사옹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상식국과 사선서는 정식 관사이며, 어주와 사옹은 국왕의 직속 기구로 내시가 직무를 수행하였다.

燒錢色·寔禮色·準備色은 모두 ‘色’이라는 관명으로 끝나는데, 고려조에서 색은 각종 행사나 의례시에 설치했다가

표 2 官司와 관련된 銘文 靑磁

제작시기	명문내용	기종	시문부위	시문기법	번조방법	소장/전거
1345년	乙酉司膳	청자상감유문로문대병	몸체 중앙	흑상감	모래 받침	국립중앙박물관
14세기 2/4분기	準備色	청자상감운학문대병	어깨	흑상감	모래 받침	“
14세기 후반	準備色	청자상감국화문통형잔	몸체면	흑상감	모래받침	일본 寧樂美術館
	準	청자상감접시편	안바닥	흑상감	-	강진 삼흥리
	準備	청자상감접시	안바닥	흑상감	모래 받침	성보갤러리
	寔禮色	청자상감운학문대접	안바닥	흑상감	가는모래	국립중앙박물관
	德泉	청자상감연화유문대병	몸체 중앙	흑상감	모래 받침	호림박물관
	德泉	청자상감연화유문대병	몸체 중앙	흑상감	모래 받침	국립중앙박물관
	宝源庫	청자상감혜수어문대병	몸체 어깨	흑상감	모래 받침	개인소장
	宝源庫	청자상감연화유문대병	몸체 어깨	흑상감	모래 받침	국립중앙박물관
	義成庫	청자상감늬문대병	몸체 중앙	흑상감	모래 받침	“
	司膳	청자상감접시편	안바닥	흑상감	모래 받침	“

표3 고려 전기와 후기의 재정 官司

재정 항목	官司	
	고려 전기	고려 후기 (1308년)
供上	內莊宅, 內庫, 殿中省, 尙乘局, 尙舍局, 尙衣局, 尙藥局, 尙食局, 中尙署, 良醢署, 守宮署	料物庫, 義成倉, 德泉倉, 內庫, 司膳署, 司醢署
國用	大府寺, 右倉, 大倉, 雲興倉, 京市署, 大倉署,各司	典農司, 大府寺, 豐儲倉(長興庫, 常滿庫)
祿俸	左倉	廣興倉
軍資	龍門倉, 軍器監	龍門倉
救恤	義倉, 常平倉, 東西大悲院, 濟危寶, 惠民局	有備倉, 典農司

파하는 입시 관청이었다.⁴⁰ 왕실의 의례나 행사 등 大事를 위한 관청이기 때문에 색의 설치와 운영은 왕실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관사명칭자가 왕실 재정기구나 왕실행사의 운영 기구에서 사용되었다는 점과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왕실 재정기구를 담당한 관리가 내시였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고려시대 내시는 왕의 최측근 세력으로, 왕을 대신해서 각종 창고의 출납을 담당하여 왕실 재정의 핵심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⁴¹ 특히, 공민왕대 이후인 14세기 후반에는 덕천고·의성고·보원고의 제조와 별감에 祿官을 파하고 환관내시가 임용되면서, 왕실 재정 기구의 사장고적인 성격이 더욱 확실해진다.⁴²

³⁶ 鄭道傳, 『三峯集』 卷之七 朝鮮經國典 上 賦典 上供 “飲膳衣服, 所以供王之奉養也, 醢醢, 所以供王之賜與也, 珍寶, 所以供王之玩好也, 是數者, 今皆謂之上供” 박종진, 「조세제도의 성립과 조세체계」, 위의 책, p. 14. 供上은 上供은 같은 의미이며, 국왕의 일상생활비(飲膳衣服·珍寶)와 정치 활동비(醢醢)로 구분할 수 있다;

³⁷ 박종진, 「재정운영의 변화」, 위의 책, pp. 177-190. 고려 왕실은 대몽항쟁 이후 어려워진 왕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실제적인 효과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충선왕이 복위하면서 왕실의 재정 관서를 확대 개편한 것은 왕실 재정을 공격적으로 확보하려는 의지였다.

³⁸ 『高麗史』 77 志 31 百官 司膳署 “忠烈王三十四年, 忠宣, 改司膳署, 以御廚·別廚·迎筵, 併焉.”

³⁹ 김계명, 「高麗 內侍制의 成立」, 『정신문화연구』 통권103호(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여름호), pp. 151-157. 원보수여를 근신으로 삼아 어주의 일을 맡게 하였다는 기록에서 근신은 內侍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高麗史』 世家 02 景宗 丙子 元年 十一月 “元甫壽餘, 爲近臣知御廚事” 참조.)

⁴⁰ 『高麗史』 志 30 百官 百官志 序文 “...都監·各色, 因事而置, 事已則罷, 或遂置而不罷, 其名號, 多出於武臣任意撰定, 率皆鄙俚, 然亦皆附錄, 作百官志.”

⁴¹ 金載名, 「高麗 前·中期의 財政運營과 內侍」, 『歷史와 社會』 제24집(국계문화학회, 2000), pp. 103-122.

⁴² 李愚喆, 「高麗時代의 宦官에 대하여」, 『史學研究』(한국사학회, 1958.8), pp. 35-36.

대몽항쟁 이후에 고갈된 왕실 재정으로 금속기보다 청자의 사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왕실의 의례 준비나 私藏庫적인 관사 운영에 내시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례명이나 관사명청자 제작에 내시들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시의 역할이 이후에 內用磁器의 제작을 감독하는 사용의 역할과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장에서 고려말 사용의 성격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高麗末·朝鮮初 ‘司饗’을 통해 본 王室用磁器의 제작 체계

1. 고려말 ‘司饗’의 성격과 內侍와의 관계

1389년 조준의 상소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용은 司幕·司楯·司衣·司彝 등과 같이 成衆愛馬 중의 하나이며, 成衆可幕·成衆官으로도 불리었다. 성중에마라는 용어는 성중과 애마가 합쳐진 것이다. 元朝에서 애마는 宿衛를 임무로 하는 관원이나 군인을 의미하는 관제였으며, ‘aimaq’라는 몽고어의 한자 표기였다. 성중아막에서 아막도 ‘aimaq’라는 몽고어 발음을 漢字로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중에마는 원간섭기 이후에 몽고 관제의 영향으로 생긴 애마가 고려의 성중관과 합쳐져서 통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³

고려말 사용은 司饗提調·司饗·差備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양왕 2년(1390)에 헌부에서는 근년에 성중에마의 제조를 종친들이 많이 맡고 있는 것이 옛 제도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있다.⁴⁴ 이러한 사실은 곧 사용제조도 종친이 맡고 있었다는 것이며, 조선시대 사용원의 제조와 부제조 대부분을 종친이 맡는 친왕실적인 성격이 고려말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사용과 같은 성중에마는 기예를 시험하여 글씨·산수·활쏘기·말타기 중에서 하나라도 통과해야만 하는 서리 정도의 직급을 가진 하급 문무관리가 역임하였다.⁴⁶ 그들 밑에 상당수의 差備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⁷

⁴³ 金昌洙, 「成衆愛馬考-麗末鮮初 身分階層의 一斷面」, 『東國史學』9·10輯(동국사학회, 1966), pp. 17-35.

⁴⁴ 『高麗史』77 志 31 百官 宗室諸君(異姓諸君) “恭讓王二年, 憲府上疏曰, 宗親不任以事, 古之制也, 近年, 多帶成衆愛馬·倉庫·宮司提調, 乞皆停罷以尊王親”; 『高麗史節要』卷 34 恭讓王 二年 庚午 11 月條.

⁴⁵ 『增補文獻備考』卷222 職官考9 諸司 1 司饗院 “...有都提調一員 議政兼, 提調四員 一文臣三宗親, 副提調五員, 一都承旨例納宗親...”

⁴⁶ 『高麗史』卷75 志 29 選舉 銓注 成衆官選補之法 “...願自今, 本曹, 必考戶籍, 及初入仕朝謝, 觀其容貌, 仍試其藝, 其於書·算·射·御中, 通一藝者, 許令入屬, 雖嘗屬者, 亦皆考覈...”

사용과 같은 성중에마 [성중아막]의 직무는 공양왕 3년(1391)에 吏曹에서 올린 계에서 볼 수 있는데, 국왕을 宿衛·近侍하는 역할로서 곧 내시직임을 알 수 있다.⁴⁸ 사용과 같은 성중에마가 국왕의 내시직에 임명되는 것은 공민왕대인 1362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⁹ 사용의 직무는 어선 담당과 여러 지역에서 진현되는 내용자기의 제작을 감독하고 운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준은 사용이 사선서와 직무가 같기 때문에 사용을 병합해야 하며, 사용이 진현되는 자기의 대부분을 운반과정에서 사취한다는 점을 들면서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⁵⁰

당시에 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용과 사선서를 두었으며, 왜 사용에서 중간 사취를 하였는지에 대한 주의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즉, 사용과 사선서가 모두 어선을 담당하였지만 사용은 품계가 없는 국왕 직속의 내시 기구였고, 사선은 정5품의 품계를 가진 정식 행정 관사였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⁵¹

사용은 국왕 직속이었지만 조준이 상소에서 명시한 것처럼 祿을 받는 정식 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사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성리학자인 조준의 입장에서 볼 때, 직무가 유사한 사용과 사선서는 병합되어야 할 것이었지만 국왕의 입장에서 사용은 국왕을 보좌하고 그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명백한 것이었다.

사용이 국왕을 근시하는 내시 조직으로, 내용자기를 監造하고 운반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미 앞장에서 왕실용 명문청자의 제작에 내시가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역할이 사용에게 이어져서 결국 조선초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

⁴⁷ 1394년에 정도전이 올린 상소 내용 중에는 사용에 속한 차비가 너무 많아서 혁파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어서 고려말경에는 이미 상당수의 차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주60 참조)

⁴⁸ 『高麗史』 75 志 29 選舉 銓注 成衆官選補之法 “三年四月, 吏曹又啓曰, 內侍·茶房·司楮·司衣·司驛等, 成衆阿幕, 備宿衛近侍之任, 不可不擇.”

⁴⁹ 김재명, 『高麗後期 內侍制의 變化』, 『정신문화연구』 통권 23 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겨울호), pp. 20-25. 고려의 내시제는 공민왕연간에 큰 변화를 맞이하는데, 공민왕 5년(1356)에 친위군인 忠勇衛의 설치로 武班職 내시가 흡수되고, 환관내시제의 정립으로 인해 원간섭기 이후에 환관들이 환관내시로 흡수되면서, 기존에 문무관리들이 역임하던 내시는 成衆官 [성중에마] 으로 변하게 된다.

⁵⁰ 『高麗史』 118 列傳 31 諸臣 趙浚 “司幕, 古之尙舍, 而今之司設也, 司饗, 古之尙食, 而今之司膳也, 今則司設, 食其祿而廢其職, 司幕, 勤其事而不食祿, 司饗以下之職, 亦然, 願以司幕·司饗等愛馬, 併於六品, ….”; 『高麗史』 118 列傳 31 諸臣 趙浚 “司饗, 每歲遣人於諸道, 監造內用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賦載, 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 皆百分之一, 餘皆私之, 弊莫甚焉.”

⁵¹ 『高麗史』 77 志 31 百官 司膳署 “忠烈王三十四年, 忠宣, 改司膳署, 以御廚·別廚·迎送, 併焉, 置提點一人, 兼官正五品, 令三人, 其一兼官, 正五品, 丞三人, 其一兼官, 正六品, 直長三人, 正七品, 副直長三人, 正八品, 後罷提點·丞·副直長, 降令, 爲正六品, 復置食醫, 正九品.”

다. 뒷장에서 언급하겠지만 남송과 명대 官窯 운영에서도 내시가 御用磁器의 監造官이었다. 이처럼 국왕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사옹의 친왕실적인 성향은 사옹이 사선서에 병합되지 않고 조선초의 사용방으로, 결국 사옹원이라는 정식 관사로 거듭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2. 조선초 司饗房의 성격과 內侍와의 관계

司饗를 비롯한 司楯·司衣·司幕·司彝 등의 성중에마는 조선이 건국되면서, 새로운 관제로 개편되고 명칭도 바뀌었다. 성중에마는 직무 외에도 기본적으로 국왕을 호위한다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되기도 하는데, 정종 2년(1400)에 사순과 사의는 별시위로⁵², 태종 3년(1403)에 司幕은 忠順扈衛司로 개편되었다.⁵³ 태종 5년(1405)에 별시위와 충순호위사는 병조에 속한 아문으로 재편되었다.⁵⁴ 사옹은 사용방으로 남아 태종 5년(1405)에 사선서, 내시부 등과 함께 吏曹에 소속된다(표4).⁵⁵ 고려말에는 국왕의 숙위와 근시의 직무를 담당했던 각각의 성중에마가 조선 개국 이후의 관계 개편에서 대부분은 병조에 소속되는 데 반해서, 사옹만이 이조에 소속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점은 결국 사용방이 다른 성중에마와 달리 어선을 담당하는 국왕의 직속 기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표3 참조)

조선초 사용방은 대전, 왕비전, 세자전 등 각 전각에 나뉘어서 설치되어 內膳과 기명을 담당하였는데⁵⁶, 고려말에는 국왕의 近侍職에 한정되었던 반면에 조선초에는 국왕과 왕비, 세자 등이 머무는 각 전각에 설치되어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조선초 사용방도 녹을 받거나 직급(품계)이 있는 정식 관사는 아니었다. 1430년 판서 신상이 “사옹은 등서반의 직품을 받지 못하여 朝官의 반열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을

52 『定宗實錄』卷六 2年 12月 己酉 “初置別侍衛革司楯司衣 司楯司衣等一千三百人, 以別牌朝士, 代司楯之任, 以內侍向上, 代司衣之任,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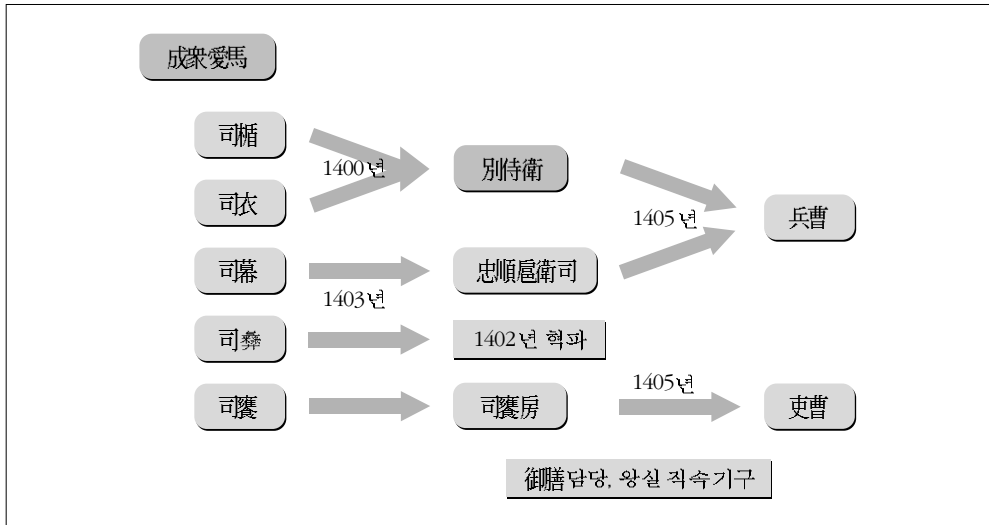
53 『太宗實錄』卷五 3年 癸未 6月 乙亥條 “…改司幕爲忠順扈衛司…”

54 『太宗實錄』卷九 5年 3月 1日 丙申條 “兵曹所屬 中軍·左軍·左軍·十司·訓練觀·司僕寺·軍器監·義勇巡禁司·忠順扈衛司·別侍衛·鷹揚衛·弓馬房·各殿行首·牽龍.”

55 『太宗實錄』卷九 5年 3月 1日 丙申條 “吏曹所屬, 承寧府·恭安府·宗簿寺·仁寧府·尙瑞司·司膳署·內侍府·功臣都監·內侍院·茶房·司饗房”

56 『太祖實錄』卷八 4年 9月 29日 庚申條 “其餘廚房·燈燭·引諸房·尙衣院·兩殿司饗房·尙書司·承旨房·…·, 總三百九十餘間也.”; 『太宗實錄』10卷 5年 10月 19日 辛巳條 “餘兩殿水刺間·司饗房及湯子洗手間等, …”; 『太宗實錄』11卷 6年 4월 28일 戊子條 “…德寶監世子殿司饗房, 不親省膳羞…”

표 4 조선초 성종애마의 관제 개편



하고 있다.⁵⁷ 사용은 정식 품계가 없는 왕실 기구로서, 자연스럽게 내관이 역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14년(1432)에도 사용은 내관이 맡고 있음이 확인되며, 朝官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바꾸지 못했다.⁵⁸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사용방은 1467년에 사용원으로 개칭되고 祿官을 두기 전까지 정식 품계가 없는 왕실 직속 기구였음을 알 수 있다.⁵⁹

사용방의 인원 구성도 대부분 내시부 소속의 환관으로 채워졌다. 정도전이 태조 3년(1394)에 각 애마다다 분속된 差備가 많아서 사용 등의 애마를 없애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⁶⁰, 이때 궁내 대부분의 차비는 환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⁶¹ 세종 5년(1423) 기록에 사용의 차비가 301명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조선초 사용은 300여 명의 환관을 거느린 거대 기구였음을 알 수 있다.⁶² 또한 각 殿에 속한 사용방에서 기명을 담당하는 자들을 城上이라고

57 『世宗實錄』卷49 12年 庚戌 9月 乙巳條 “··判書申暉對曰, 司饗·司幕·尙衣院·上林園·樂工·圖書院之輩, 皆非流品, 不得參班, 其餘雖工商賤隸, 若受東西職則並參朝班矣.”

58 『世宗實錄』卷56 14年 4月 15日 癸卯條 “傳旨承政院, 闕內宣飯, 予所及見者, 尙不豐潔, 況目所不見者乎? 予欲革內官, 以朝官典司饗, 何如. 知申事 安崇善 等曰 雖用朝官, 疎虞之弊, 不可除也, 宜仍舊. 如有不謹者, 痛繩以法. 宋仁山曰, 用朝官爲便, 從 崇善 等議.”

59 『世宗實錄』卷4 13年 4月 4日 己亥條 “改司饗房爲司饗院, 始置祿官”

60 『太祖實錄』卷5 3年 甲戌 2月 “一 司楯·司衣·司幕·司彝·司饗, 右件愛馬, 乃前朝之季添設, 宜在革去, 而各有差備似難卒革···”

61 『恭靖王實錄』卷二 元年 己卯 12月 “上曰, 宮中差備不可闕也. 卽今宦官各充其任, 宜勿復論.”

하였는데, 『경국대전』에는 이들 중에 많은 수가 내시부의 하나인 다인청에 소속된 다인성상의 형태로 사용방에 속해 있었다.⁶³ 조선초 사용방이 왕실 직속 기구로서, 내시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⁴

조선초 사용방은 고려말 사용보다 인원과 기구가 확대되었고, 구성인원도 고려말 하급 문무관리가 맡던 내시에서 환관내시로 자연스럽게 대체되었다. 조선초에도 내시나 사용방이 왕실용 자기의 제작과 관리에 관여했음을 다음의 몇몇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내시가 직접 제작지에 파견된 경우는 “태종 11년(1411)에 內堅 安和尚을 慶尙道 中牟·化寧 등의 현에 보내어 花器를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는 기록에서 볼 수 있다.⁶⁵ 화기는 대궐 후원의 꽃과 과실을 관리하는 상립원에서 사용하던 화분으로 보이는데, 各道에서 매년 進貢되었다.⁶⁶ 그런데 內堅(內侍)를 경상도까지 보내서 제작을 감독하게 한다는 것은 특별한 주문 제작이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경상도 중도의 榘縣里와 己未驛里에 上品磁器所가 있었다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⁶⁷

성종 24년(1493)에 군기사와 사용원에서 사용하는 柴場에 대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종이 전교하기를 전에 내시 신운이 사기소 柴場을 살피 정하고 버드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만들었으므로 지금까지 전하여 온다고 하는데, 신운의 버드나무에 대하여 사용원 제조가 이 때문에 와서 아뢰었으므로 내가 윤허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⁶⁸ 사용원에 관영 사기소가 설치된 이후인 1493년에는 사용원 제조가 사기소의 柴場을 정하는 일을 담당하였지만 이전에는 내시 신운이 사기소의 시장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시 신운이 사기소 시장

⁶² 『世宗實錄』卷19 5年 癸卯 正月 “兵曹啓, 闕內出入信符, 內人家小二百, 別監·司襄等各差備三百一, …”

⁶³ 김운경, 「朝·明 宮廷用 磁器의 제작체제와 관리」, 『미술을 통해 본 동아시아』(중국사학회 55호 학술발표회, 2007), p. 33.

⁶⁴ 宋朱煥, 「조선 전기의 司襄院」, 『朝鮮前期 王室財政 研究』(집문당, 2002), p. 202. 조선초 내시부의 직무 중에 監膳은 왕의 음식을 검사하고 감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용방의 직무와 깊게 관련된다. 『經國大典』卷1 吏典 內侍存條 “掌大內監膳·傳命·守門·掃除之任, 共一百四十四員四都目.”

⁶⁵ 『太宗實錄』卷21, 11年 4月 29日 己未條 “遣內堅安和尚于慶尙道中牟·化寧等縣, 監做花器.”

⁶⁶ 『太宗實錄』卷34 17年 12月 20日 辛丑條 “命停各道花器之貢, 上曰, 上林園花器負重, 遠方難致之物, 每年進貢未便, 自今以後, 非有特旨, 勿令上納, 以寬民力.”; 박경자, 앞의 논문(2005), pp. 285-287.

⁶⁷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尙州牧條 “磁器所三, 一在中牟縣北榘縣里, 上品. 一在中牟東己未驛里, 上品. 一在功城縣西院洞, 中品.”; 장동철, 「尙州 大杓里窯址 陶磁片 研究」, 『미술사학연구』 257(한국미술사학회, 2008.3), pp. 8-22. 추현리 상품 자기소로 추정되는 상주 대포리요지에서 분청사기편과 백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제259호 〈분청사기상감인화용문호〉와 유사한 분청사기편들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⁶⁸ 『成宗實錄』卷 277 24年 癸丑 5月 “傳曰, 大典 軍器寺柴場二十里, 而司襄院沙器所柴場無定所, 隨薪木茂密處移徙. 前者內侍中雲審定沙器所柴場, 植柳木爲界, 故至今相傳云 中雲柳木. 司襄院提調, 以是來啓, 故予允之.”

을 정한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신운은 세조 연간(1455-1468)에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조 8년(1462)에 이성계의 후비인 신덕왕후를 위해 조성된 흥천사 중을 제작할 때 판내시부사 신운이 監鑄, 즉 제작을 감독하는 부제조로 참여하고 있다.⁶⁹ 즉, 왕실에서 사용하거나 후원하는 器物의 제작을 감독하는 역할에 내시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세조 9년(1463)에는 판내시부사 전균이 사용제조를 역임하였는데, 進膳시에 왕과 세자의 器皿을 분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⁷⁰ 여러 명의 사용제조 중에 기명을 분별하지 못한 이유로 환관 전균이 파직되는 것을 볼 때, 전균이 기명관리를 담당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한 해 전인 1462년에도 왕과 세자의 기명을 분별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별좌를 꾸짖은 기록이 있어서⁷¹, 사용방과 내시가 御用磁器를 분별하여 사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시 전균은 세조의 등극에 공을 세운 靖難功臣이었으며, 사기소 시장을 정한 내시 신운도 당시 사용제조를 역임하고 있던 유자광과 함께 성종이 왕이 되는 데 일조했던 일등 공신이었다.⁷² 왕실용 자기의 제작과 관리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국왕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당시 정황으로, 조선초 궁정의 각 관사에서 사용하는 자기는 戶曹에서 담당하여 貢納體制로 조달되었지만 왕실용 자기의 제작과 관리에 왕실 직속 기구인 사용방과 내시들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³ 1420년경부터 1460년경까지로 추정되는 우산리 일대 가마에서 王·中·殿 등의 명문 백자가 출토되어 당시 왕실용 자기의 제작 상황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⁷⁴

⁶⁹ 진흥섭 編著, 『韓國美術史資料集成(3)-朝鮮前期 建築・雕刻・書寫・工藝篇』(일지사, 1996), pp. 471-472.

⁷⁰ 『世祖實錄』卷 30 9年 2月 22日 辛巳條 “密山君朴仲孫更請曰昨罪, 傳曰 前日進膳時何以司饗提調, 不分器皿, 父子安有同器之理…”

⁷¹ 『世祖實錄』卷 29 8年 11月 30日 庚申條 “御思政殿, 受常參, 視事. 命二品以上入侍設酌, 上謂禮曹判書李克培曰 名分不可不嚴, 昨日司饗院進膳, 雜用世子器皿, 甚不可, 若是則父子同器, 君臣同器, 奴主同器矣, 名分何居, 與野人奚擇焉, 世子尙且視膳, 事孰大於御膳乎. 其司饗別坐罪尤重焉, 當丁寧警戒之.”

⁷² 『端宗實錄』卷 13 3年 1月 24日 庚午條 『睿宗實錄』 권 1 卽位年 10月 28日 甲寅條

⁷³ 호조에서 담당하는 공납 사기도 실제로 사용방에서 거두어들인다는 기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太宗實錄』卷 33 17年 4月 20日條 “戶曹上器皿除弊事宜, 啓曰 據長興庫呈, 外貢砂木器, 以司饗房納施行, …”

⁷⁴ 김봉준, 「15세기 牛山里 출토 銘文白磁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7), pp. 108-110. ‘王’銘은 왕 또는 왕이 있는 대전을 소용처로, ‘中’명은 중궁전을 소용처로, ‘전’명은 殿下의 간칭이나 끝내 전각으로 보았다. 이 기물들은 깎음새와 변조방법이 모두上品이어서 왕이나 왕비에게 진상되는 기명으로 보았다. 이러한 명문백자는 官司銘문청사기와 다른 제작 체계로 추정되기 때문에 본고에서 살펴본 조선초 왕실용 자기의 제작 체계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司饗院에 沙器所를 설치하는 원인과 시기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고려말·조선초 왕실용 자기의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었나를 파악하여, '왜 사용원에 자기소를 설치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⁷⁵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六曹體制를 원칙으로 편제된 조선 관제에서 왕실용 자기를 제작하는 자기소는 工曹에 소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소는 공조가 아닌 吏曹에 속한 사용원에 설치되었다. 그 원인은 왕실용 자기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監造의 역할을 사용원의 전신인 사용방에서 했던 점이 주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말에서 조선초 왕실용 자기 제작에서 감조관이나 御器의 관리자로서 내시의 존재가 확인되는데, 조선초 사용방이 내시로 구성된 品階[직급]가 없는 왕실의 직속 기구였기 때문이다. 1389년 조준의 상소에 등장하는 사용은 내시직으로 내용자의 監造官이었으며, 이미 그 이전부터 왕실의 레나 왕실 제정 관사에 사용된 자기 제작에 내시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황이 조선초에도 이어져서 내수[내시] 안화상이 진현하는 花器를 監造하기 위해 경상도 증도·화령에 파견되었다. 특히, 세조 연간에 사용제조였던 전군이 내시였으며, 세조 연간 즈음에 沙器所 柴場을 정한 신운도 내시였다. 대전·중궁전·세자전 등에 설치된 사용방이 그릇을 분별하여 사용하고 관리할 임무가 있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학계에서 내시가 왕실용 자기의 제작을 監造한다거나 관리하는 체계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 남송과 명대 관요에서 내시의 역할을 볼 수 있으며, 남송과 명대 관요의 운영 체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남송 초에 건립된 수내사관요의 설치 배경을 보면⁷⁶, 수내사에 가마를 설치하고 운영한 곳이 監局인데, 소국은 후원에서 제거로 있던 소성장이 중심이 된 기구였다. 소성장은 監鑄이라는 인물의 誤記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內侍였으며⁷⁷, 后苑도 내시 기구 중에 하나였다.⁷⁸ 수내사는 원래 宮城과 太廟 공사를 담당하던 공부에 속한 將作監의 하위 관사이다.⁷⁹ 즉, 남송초 수내사관

⁷⁵ 관영 자기소의 설치 원료 수급, 재정 문제, 인력 등 여러 가지 상황이 갖춰진 이후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갖추어서 관영 자기소를 설치하고자 했던 세조의 적극적인 의지도 깊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관영 자기소의 설치에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다루어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으며, 이후에 별도의 논고를 통하여 연구·보완하고자 한다.

⁷⁶ 葉寅, 『坦齋筆衡』 “中興渡江, 有邵成章提舉后苑, 號邵局, 襲故京遺制, 置窯于修內司, 造青窯器, 名曰內窯, …” (소성장이 제거로 있던 후원을 소국이라고 했는데, 소국에서 수내사에 가마를 설치하고, 고경유제 즉, 옛 수도에서의 제도에 따라서 청자를 제작했고 내요라고 했다.)

요의 운영 체계는 내시가 운영하는 소국에서 故京遺制에 맞게 청자의 제작을 감독하고, 工部에 속한 수내사에 가마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제작 과정을 진행했던 것이다.

明期 관요는 내시와 工部가 황실용 자기를, 光祿寺와 工部가 궁정용 자기를 담당하는 이원적인 체계로 운영되었다. 특히, 내시는 황실에서 사용하는 그릇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릇이 정해진 제도에 맞게 제작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황제의 명령을 받은 내관이 饒州 御器廠에 직접 가서 자기 제작을 감독하거나 공부 관리와 내관이 같이 파견되기도 하였다.⁸⁰ 명조도 남송과 마찬가지로, 황실에서 사용되는 자기의 제작과정에 황실의 직속 기구인 내시가 監造官으로 개입하였다. 그러나 공장의 징발과 제작비용, 철차 등의 문제는 정식 행정처인 공부에서 담당하였다. 관요에서 御器 제작시에 監造와 製作의 역할이 각각 內侍와 工部로 구분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예들을 볼 때, 자기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監造 직무는 국왕의 명령을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내시들이 책임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송초나 명대초, 조선초와 같이 관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나 고려 말기처럼 원간섭기 이후에 왕실 제정의 고갈과 관제의 혼란 등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결국 吏曹에 속한 사용원에 사기소가 설치되는 원인은 사용원의 전신인 사용방이 內侍로 이루어진 왕실의 직속 기구로서, 이미 왕실용 자기 제작과 관리를 감독하는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⁸¹

사용방이 왕실용 자기 제작에서 監造의 역할을 하던 내시로 구성된 조직이었다는 점은 관영 사기소의 설치시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사용원 사기소의 설치시기는 1467년에 사용방이 사용원으로 개칭되고 녹관이 배치되는 기록에 근거하여 1467년으로 보는 견해와⁸² 1467년 기록을 기점으로 『慶尙道續撰地理誌』에 上品磁器所가 사라지는 1469년

77 李民舉, 「宋官窯論稿」, 『文物』第8期(北京: 文物出版社, 1994), p. 49; 李輝炳, 『宋代官窯瓷器』(紫禁城出版社, 1992), p. 54.

78 『宋史』卷 166 志第119 職官六內入內侍省·內侍省條 “後苑勾當官無定員, 以內侍充, …”

79 『宋史』卷 165 志第118 職官五將作監條 “修內司, 掌宮城·太廟繕修之事.”; 『宋史』卷 163 志第116 職官三工部條 “掌天下城郭·宮室·舟車·器械·符印·錢幣·山澤·苑囿·河渠之政, 凡營繕, 歲計所用財物, 闕度支和市, 其工料, 則飭少府·將作監檢計其所用多寡之數.”

80 김윤정, 앞의 글(2007), pp. 30-35.

81 조선초에는 왕실용 자기의 제작 및 수급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실용 자기의 監造와 誦達의 역할은 내시뿐만 아니라 지방관이 하기도 하였다. 『太宗實錄』卷26 13年(1413) 7月 16日 癸巳條 “命 全羅道 都觀察使, 歲進磁器.”; 『世宗實錄』卷27 7年 2月 15日 乙卯條 “傳旨廣州牧使, 進獻大小白磁罐本十事, 精細礮造以進”

정월 이전까지인 1467년 4월에서 1468년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⁸³ 또한 사기장 380명이 기제된 『경국대전』 工典條가 완성되는 1469년 이후부터 사기 제조가 관장제수공업 체제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⁸⁴ 최근에는 1466년에 進上되는 백자기를 貢物로 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기록에 근거하여⁸⁵ 1466년에 관요가 설치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⁸⁶

이러한 의견들은 일견 모두 타당성이 있어서 ‘1466년 백토의 확보→1467년 조직 개편과 녹관 배치→1468년 380명 장인 확보→1469년 『경국대전』 工典 등제’라는 순차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⁷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관영 사기소가 설치되는 시기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관요 설치 이전에 왕실용 자기의 제작 체계를 고려한다면 관요 설치 시점은 1467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1466년에 공조의 의견은 왕에게 진상되는 백자를 공납하지 말고 국가 재정으로 제작하자는 것이며, 곧 관요 설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왕실용 자기 제작을 담당하는 사기소는 工曹가 아닌 吏曹에 속한 사용원에 설치되었다. 사기소가 설치된다는 것은 사용방이 기존의 監造 직무와 함께 자기 제작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사용방이 가마설치·넬감·재료·沙器所 관리 등에서 소용되는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공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⁸⁸

그러나 문제는 사용방은 내시와 녹을 받지 않는 無祿官인 별좌로 구성된 품계가 없는 기구였기 때문에 사용방에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관영 사기소를 설치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1466년 직후인 1467년에 결국 직급이 없는 왕실 직속 기구였던 사용방을 정3품의 정식 행정 관사로 공식화하고 관리를 두어서 관영 사기소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

⁸² 윤용이, 앞의 글(2001), pp. 12-13; 『世祖實錄』 卷4 13年 4月 4日 己亥條 “改司饗房爲司饗院, 始置祿官”

⁸³ 김영원, 앞의 책(1995), pp. 53-61.

⁸⁴ 강경숙, 앞의 책(2000), pp. 399-407.

⁸⁵ 『世祖實錄』 卷39 12年 6月 7日 丙午條 “工曹啓 白磁器, 除進上及已前燒造者外, 自今公私毋得用之, 違者並工人, 以制書有違律科罪, 且勿定貢物, 以防憑公私造之弊, 凡白土產出處, 令所在邑禁盜用, 無遺錄簿, 藏于本曹及承政院, 從之.”

⁸⁶ 전승창, 앞의 글(2008), pp. 76-78.

⁸⁷ 세조 연간인 1460년대에 관영 사기소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당시 전반적인 분위기와 순차적인 흐름은 강경숙 선생님의 高見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 강경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⁸⁸ 사용원 제조가 沙器所의 槌場 문제, 가마의 형태와 효용성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서 가마 설치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어서, 사용원은 왕실용 자기 제작의 전과정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成宗實錄』 卷277 24年 5월 18일 “司饗院 提調 柳子光, 以上作沙器 燒造立釜臥釜形狀來啓曰…… 當用利川粘土, 請令附近官, 輸土于沙器所試之.” 『成宗實錄』 卷 277 24年 癸丑 5月條.

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67년 기록은 ‘房이院으로 개편되었다’는 점보다 ‘비로소 녹관을 두었다’ 점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⁸⁹ 사용방은 이미 1462년에도 사용원으로 기록된 예가 있기 때문에 1460년대 초반부터 개편의 움직임이 있다가 1467년에 정식으로 개칭되는 것으로 생각된다.⁹⁰ 지금까지 1467년의 기록이 중요하게 언급은 되었지만, 관요 설치 이전에 왕실용 자기 제작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즉, 房이나 院이라는 官名보다 기존에 내시가 중심이 되었던 사용방에 녹관이 배치됨으로써 관영 사기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1466년의 기록에서 백토의 산출처를 기록한 장부를 工曹뿐만 아니라 승정원에도 간수하게 했다는 점도 사용원에 녹관 배치가 가지는 중요성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사용원의 부제조 중에 한 명이 승정원의 首長인 도승지였기 때문이다.⁹¹ 따라서 조선초에 국가재정으로 그릇을 제작하는 관요로서의 사기소가 설치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는 시기는 녹관이 배치되는 146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말 원간섭기 이후부터 조선초 사용원에 관요가 설치되기까지 왕실용 자기가 제작되는 과정에 내시가 관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왕실용 자기의 제작 체계와 성격을 살펴보았다. 왕실용 자기는 제작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監造官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왕실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內侍였다. 내시는 고려말·조선초와 같이 정치적 혼란기나 官制가 정비되지 않은 시기에 국왕의 명령을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본고에서는 고려말·조선초 왕실용 자기의 제작 체계에 대하여 몇 가지 새로운 점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 고려말 원간섭기 이후부터 왕실 재정의 고갈과 관제의 혼란 등 불안정

⁸⁹ 『世祖實錄』卷4 13年 4月 4日 己亥條 “改司饗房爲司饗院，始置祿官”；전승창, pp. 71-73. 分院이라는 명칭이 관찬사료에 등장하는 시기가 1625년으로, 15세기에는 分院과 관요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사용방이 사용원으로 개칭되는 1467년의 기록은 관요인 사기소의 설치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⁹⁰ 본고 주 71) 참조

⁹¹ 본고 주 45) 참조

한 정치 상황에서, 국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내시들이 왕실 의례나 왕실 재정 관사에서 사용되는 청자의 제작과 수취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고려말기에 내시의 이러한 역할이 사용으로 이어졌으며, 사용은 국왕의 직속 내시 기구로 內用磁器를 監造하고 조달하는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사용은 사용방으로 吏曹에 편제되었다. 사용방은 내시가 주축이 된 품계가 없는 왕실 직속 기구로서, 왕실용 자기의 제작과 관리에 관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왕실용 자기 제작에서 사용방의 監造 기능과 친왕실적인 성격은 결국 吏曹에 속한 사용원에 왕실 자기의 제작을 전담하는 沙器所가 설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사기소의 설치는 사용방이 왕실용 자기의 監造 뿐만 아니라 製作까지 담당한다는 의미이다. 즉 자기의 제작비용이 국가 재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식 관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1467년에 사용원이라는 정식 행정기구로 개편되고 녹관을 둔 이후에 국가재정으로 그릇을 만드는 관료로서의 사기소가 설치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려말·조선초 왕실용 자기 제작의 제도적인 부분이 실제 제작 현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광주 우산리 요지 일대에서 출토되는 명문백자와의 관련성을 제시하였으나 앞으로 연구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좀 더 숙고하여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주제어(key words) __ 왕실용 磁器(royal wares), 內侍(Naesi: palace attendants in Goryeo period and eunuchs in Joseon period), 司饗房(Saongbang: organization of Royal Cuisines), 司饗院(Saongwan: office of Royal Cuisines), 沙器所(Sagiso: kilns for the manufacture of royal wares), 官窯(gwanyo: official kilns), 分院(Bunwan: official kilns), 고려말 銘文靑磁(celadon with inscription in the last days of Goryeo)

▣ 투고일 2008년 8월 30일 | 심사개시일 2008년 10월 6일 | 심사완료일 2008년 10월 30일 ▣

참고문헌

『高麗史』
『東國李相國集』
『太宗實錄』
『定宗實錄』
『世宗實錄』
『世祖實錄』
『恭靖王實錄』
『成宗實錄』
『宋史』
『經國大典』
『增補文獻備考』
李穡, 『牧隱詩稿』
鄭道傳, 『三峯集』
葉寅, 『坦齋筆衡』

단행본

강경숙, 『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金海榮, 『朝鮮初期 祭祀典禮 研究』, 집문당, 2003.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김영원, 『朝鮮前期 陶磁의 研究-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 학연문화사, 1995.
박용운, 『高麗時代 官階·官職 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서운길, 『한국밀교사상사연구』, 불광출판사, 1994.
宋洙煥, 『朝鮮前期 王室親政 研究』, 집문당, 2002.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東京: 清閑舎, 1944.
李輝炳, 『宋代官窯瓷器』, 紫禁城出版社, 1992.

진홍섭 編著, 『韓國美術史資料集成(3)-朝鮮前期 建築・周刻・書寫・工藝篇』, 일지사, 1996.

논문

강경숙, 「分院成立 時期에 관한 小考」, 『美術史學論叢』, 通文館, 1988, pp. 655-663.

_____, 「分院成立에 따른 粉靑沙器 編年 및 靑畫白磁 개시문제 시론」, 『韓國私學論叢』 下 朝鮮時代篇, 一潮閣, 1994, pp. 1472-1497.

_____, 「광주지역 가마출토 분청사기와 백자」,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경기도박물관, 2001, pp. 41-88

_____, 「15세기 경기도 광주 백자의 성립과 발전」, 『미술사학연구』 237, 한국미술사학회, 2003, pp. 75-101.

姜素妍, 「熾盡光如來往臨圖」, 『國華』 第1313號, 朝日新聞社, 2005, pp. 50-55.

김보광, 「高麗前期 內侍의 構成과 役割」, 『한국사학보』 제13호, 2002. 9, pp. 105-133.

김봉준, 「15세기 牛山里 출토 銘文白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7. 1.

金勝惠, 「《東文選》醜禮靑詞에 대한 宗敎學的 考察」, 『도교와 한국사상』 한국도교사상연구총서 I, 범양사, 1987, pp. 107-133.

김영원, 「分院官窯와 地方窯」,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경기도박물관, 2001, pp. 25-40.

김운정, 「고려말·조선초 官司銘梅瓶의 製作時期와 性格」, 『흙으로 빛은 우리 역사』, 용인대박물관, 2004, pp. 146-165.

_____, 「朝・明 宮廷用 磁器의 제작체제와 관리」, 『미술을 통해 본 동아시아』, 중국사학회 55호 학술발표회, 2007, p. 26-39.

金載名, 「高麗 前・中期의 財政運營과 內侍」, 『歷史와 社會』 제24집, 국제문화학회, 2000, pp. 95-125.

_____, 「高麗後期 內侍制의 變化」, 『정신문화연구』 통권9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겨울호, pp. 3-26.

_____, 「高麗時代의 胥吏內侍」, 『진단학보』 101호, 진단학회, 2006, pp. 171-194.

_____, 「高麗 內侍制의 成立」, 『정신문화연구』 통권10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여름호, pp. 151-173.

金昌洙, 「成衆愛馬考-麗末鮮初身分階層의 一斷面-」, 『東國史學』 9・10輯, 동국사학회, 1966, pp. 17-36.

金敬雄, 「高麗中期 道敎의 盛行과 그 性格」, 『道敎의 韓國的 變容』 韓國道敎思想研究叢書X, 亞細亞文化社, 1996, pp. 161-197.

朴敬子, 「14세기 康津 磁器所의 체계와 窯業 체계의 이원화」, 『미술사학연구』 238・239, 한국미술사학회, 2003. 9, pp. 109-147.

- _____, 「분청사기 명문 연구」, 『강좌미술사』 25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6, pp. 261-292.
- 朴漢男, 「高麗內侍와 門閥貴族의 形成關係 -高麗前期 東萊鄭氏家門을 中心으로-」, 『首善論集』 第3輯,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83, pp. 1-23.
- 방병선, 「법전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자기 생산과 관리」,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향산 안희준 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 사회평론, 2006, pp. 518-541.
- _____, 「중국 어기창과 광주분원」,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경기도박물관, 2001, pp. 89-106
- 梁銀容, 「高麗時代의 道教와 佛教」, 『도교와 한국 사상』 한국도교사상연구총서 I, 범양사, 1987, pp. 93-105.
- 윤용이, 「조선시대分院의 성립과 변천」,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경기도박물관, 2001, pp. 7-23.
- _____, 「朝鮮時代分院의 成立과 變遷에 관한 研究(I)」, 『考古美術』 149, 한국미술사학회, 1981, pp. 22-45.
- _____, 「朝鮮時代分院의 成立과 變遷에 관한 研究(II)」, 『考古美術』 151, 한국미술사학회, 1981, pp. 46-59.
- 李民舉, 「宋官窯論稿」, 『文物』 第8期, 北京:文物出版社, 1994, pp. 52-56.
- 李憲喆, 「高麗時代의 宦官에 대하여」, 『史學研究』, 한국사학회, 1958.8, pp. 18-44.
- 장동철, 「尙州 大杓里窯址 陶磁片 研究」, 『미술사학연구』 257, 한국미술사학회, 2008.3, pp. 5-26.
- 전승창, 「15~16세기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관요 연구」, 홍익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 _____, 「조선 관요의 분포와 운영체계 연구」, 『미술사연구』 18호, 미술사연구회, 2004, pp. 3-27.
- 鄭良謨, 「高麗陶器銘文의 性格」, 『高麗陶器銘文』, 國立中央博物館, 1992, pp. 143-147.

조선시대 왕실용 자기를 제작하는 沙器所는 당시 御膳을 담당하는 사용원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磁器를 제작하는 일은 吏曹가 아니라 工曹에 분장된 업무였다는 점, 둘째 사용원 이전에 御膳을 담당하던 司膳署에는 자기소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려말 원간섭기 이후부터 조선초 사용원에 관요가 설치되기까지 왕실용 자기의 제작과 관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용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고려말·조선초 왕실용 자기의 제작 체계에 대하여 몇 가지 새로운 점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 고려말 원간섭기 이후부터 왕실 재정의 고갈과 관계의 혼란 등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국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내시들이 왕실 의례나 왕실 재정 관사에서 사용되는 청자의 제작과 수취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고려 말기 이러한 내시의 역할이 성종에마의 하나였던 사용으로 이어져서, 사용은 국왕의 직속 내시 기구로 內用磁器를 監造하고 조달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사용은 사용방으로 吏曹에 편제되었다. 사용방은 내시가 주축이 된 품계가 없는 왕실 직속 기구로서, 왕실용 자기의 제작과 관리에 관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왕실용 자기 제작에서 사용방의 監造 기능과 친왕실적인 성격은 결국 吏曹에 속한 사용원에 왕실 자기의 제작을 전담하는 沙器所가 설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자기소의 설치에 사용방이 왕실용 자기의 監造 뿐만 아니라 製作까지 담당한다는 의미이다. 즉 자기의 제작비용이 국가 재정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식 관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1467년에 사용원이라는 정식 행정기구로 개편되고 녹관을 둔 이후에 국가 재정으로 그릇을 만드는 관요로서의 자기소가 설치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왕실용 자기의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監造인데, 즉 왕실용 자기의 제작을 감독할 수 있는 책임자는 왕실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內侍였다. 중국의 남송이나 명의 경우, 왕실용 자기의 제작에서 내시는 그릇의 제작을 감독하는 監造官으로, 정식 행정처인 工部는 가마 설치·재료비·공장의 인건비 등 실제 제작 과정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중국과는 달리 吏曹에 속한 사용원에서 監造와 製作을 모두 담당하는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상황은 고려 말기경부터 왕실용 자기 제작에 관여했던 내시의 역할이 고려말 司饗과 조선초 사용방으로 이어진 것이며, 사용방의 監造 기능과 친왕실적인 성격은 결국 吏曹에 속한 사용원에 왕실 자기의 제작을 전담하는 沙器所가 설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bstract

A Study on Royal Wares Manufacturing System During
the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period

Kim Yunjeong*

Sagiso, which were responsible for producing royal wares during the Joseon period, were established at the *Saongwon* (Office of Royal Cuisines) under the Ministry of Personnel Affairs. In relation to this historical fact, however, two problems can be pointed out: first, the work of manufacturing ceramic wares was undertaken not by the Ministry of Personnel Affairs but by the Ministry of Public Works; second, the *Saseonseo* (Office of Royal Cuisines), which undertook the job of preparing royal food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Saongwon*, did not run the *Sagiso*.

To address these problems, this study explores the role and influence of the *Saong* (the palace attendants responsible for preparing the royal cuisine) who wielded considerable influence over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royal wares between the last days of Goryeo (subject at that time to Yuan intervention) and the early Joseon period when the *guanryo* (official kilns) were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Saongwon*. The study also identifies several new facts regarding the system of manufacturing royal wares during this period.

First, the possibility was explored that—amid the political instability prevalent during Goryeo’s last days under Yuan intervention, including the exhaustion of the state’s finances and the disorderly official regulations—the *Naesi* (palace attendants in Goryeo period) who worked in

* Yong-in university Museum Curator

close proximity to the king probably got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collection of the celadon that were used in royal ceremonies and royal administrative affairs. Second,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role of the *Naesi* in this matter was transferred to the *Saong*, one of the *Seongjungaema* (groups of officials working in close proximity to the king). They, as the organization of *Naesi*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king, undertook the job of inspecting and procuring royal wares. Third, with the collapse of Goryeo and the founding of Joseon, the *Saong* were incorporated into the *Saongbang* (organization of Royal Cuisines)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Personnel Affairs. Research has indicated that the *Saongbang*, an organization with no court ranking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king, was controlled by the eunuchs, undertook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royal wares. Fourth, the *Saongbang*'s function of inspecting royal wares and attending to the king closely eventually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agiso* at the *Saongwon* under the Ministry of Personnel Affairs. Fifth, the establishment of the *sagiso* meant that the *Saongbang* undertook to not only inspect but also to manufacture royal wares. Likewise, given the fact that the state finances had to be properly managed in order to manufacture royal wares, an official management system was presumably essential. Thus, in 1467, the official agency known as the *Saongwon* was established and staffed with regular officials, while the *sagiso* were established as official kilns.

In conclusion, inspection wa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procedure of manufacturing royal wares, and this function was undertaken by eunuchs who work in close attendance to the king. During the Chinese Southern Song and Ming dynasties, eunuchs were employed to inspect the manufacture of imperial wares, and the relevant Ministry of Public Works was responsible for the installation of kilns, material costs, labor costs of potters, and other frontline jobs. Joseon, however, unlike China, used the Ministry of Personnel Affairs to undertake the inspection and manufacture of royal wares through the offices of the *Saongwon*. Likewise, this particular situation came about because the *Naesi*'s role in the manufacture of royal wares was transferred to the *Saong* and the *Saongbang* between the last days of Goryeo and the early Joseon period. The *Saongbang*'s role in inspecting the manufacture of royal wares and its closeness to the king presumably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agiso*, an office exclusively responsible for manufacturing royal wares under the *Saongwon*, which belonged to the Ministry of Personnel Affairs.